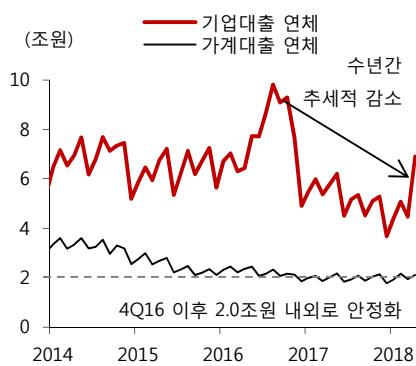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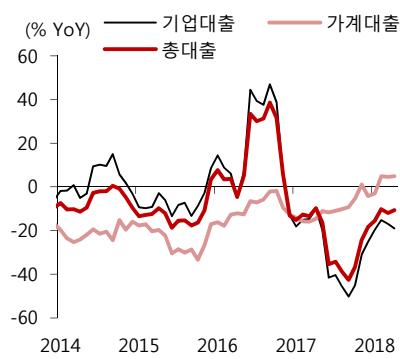
Analyst
김도하
dohakim@sk.com
02-3773-8876

연체채권 잔액 규모 (추정) (본문 그림 9)



자료: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

연체채권 잔액 YoY 증가율 (추정) (본문 그림 10)



자료: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

주: '18년 4월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

은행

4월 연체율: 일회성 거액 신규 연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안정적

국내은행의 4월 말 연체율은 0.59% (+5bp YoY)로 18개월 만에 상승을 나타냄. 이는 성동조선의 화생절차에 따른 영향이며, 해당 기업의 신규 연체 제외 시 연체율은 0.45% (-9bp YoY)로 하락세를 지속. 대출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인 연체 규모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. 가계 연체채권이 2018년 들어 YoY 증가하고 있으나 4Q16 이후 연체 잔액의 절대 규모가 2 조원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.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당분간 은행업종의 대손지표는 하향 안정화의 방향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

국내은행 4월 연체율 0.59% (+5bp YoY)로 상승

국내은행의 4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 (1개월 이상 연체 기준)은 0.59%로 전년동월대비 5bp 상승. 18개월 만에 YoY 악화를 나타냈는데, 이는 성동조선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신규 연체가 2.2조원 발생했기 때문. 이에 따라 대기업 연체율이 1.76%로 1.1%p YoY 상승했으며, 중소기업 연체율이 0.64%로 15bp YoY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10bp YoY 악화된 0.86%를 기록. 가계는 주택담보 및 그 외 대출 연체율이 각각 0.19% (-2bp YoY), 0.46% (-2bp YoY)로 여전히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함 (그림 1~6 참조)

일회성 거액 신규 연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안정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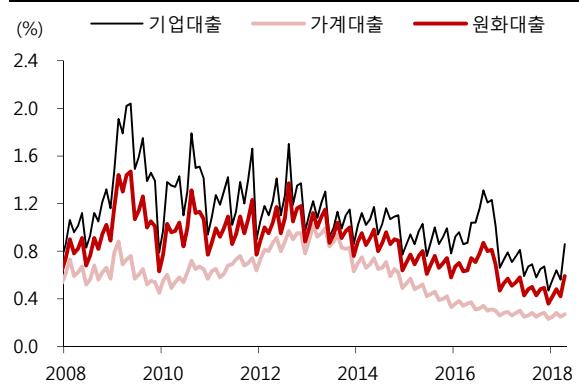
대기업 부문의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했으나, 성동조선의 신규 연체를 제외한 은행연체율은 0.45%(*)로 추산돼 전년대비 하락세를 지속함. 4월 말 연체채권 잔액은 9.0조원으로 14% YoY 증가했으나 성동조선 제외 시 14% YoY 감소해, 대출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인 연체 규모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(그림 7). 가계 연체채권은 2.1조원 (+4.9% YoY)으로 추정됨. 수년 간 감소해온 가계 연체채권이 2018년 들어 YoY 증가를 기록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지만, 4Q16 이후 연체 잔액의 절대 규모가 2 조원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
(*성동조선 신규 연체 제외 시: 총 연체율 0.45%, -9bp YoY / 기업 연체율 0.59%, -17bp YoY / 대기업 연체율 0.35%, -30bp YoY)

우려할 시그널은 아직 없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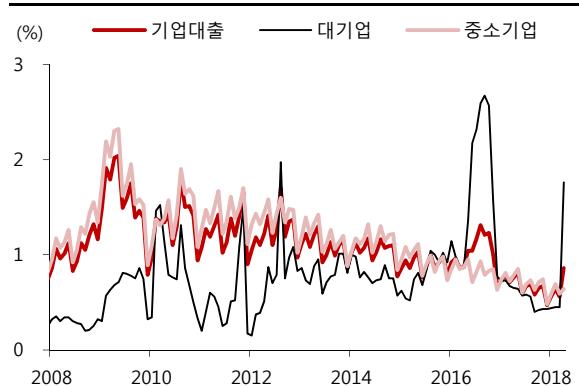
국내은행 연체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해 옴. 대출금리가 상승 전환된 2016년 4분기 이후에도 월 중 신규 연체는 평균 1.2조원으로 2015년 및 2016년 평균인 1.7~1.8조원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. 대출금리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은행의 credit risk는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변수지만, 우려할 만한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. 따라서 당분간 은행업종의 대손지표는 하향 안정의 방향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

그림 1.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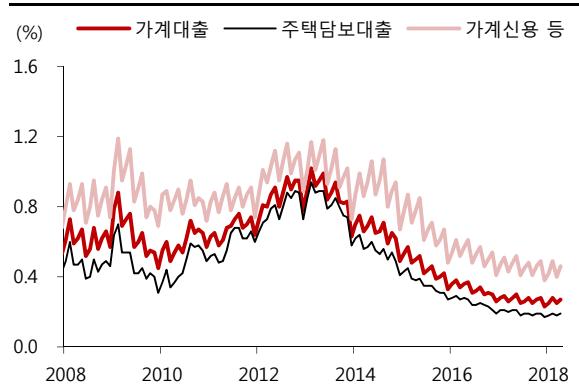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SK증권

그림 3.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, SK증권

그림 5.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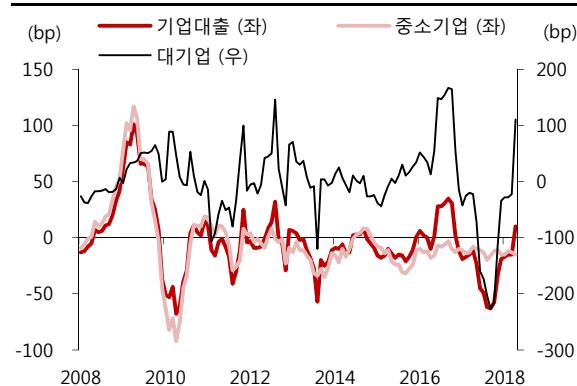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SK증권

그림 2.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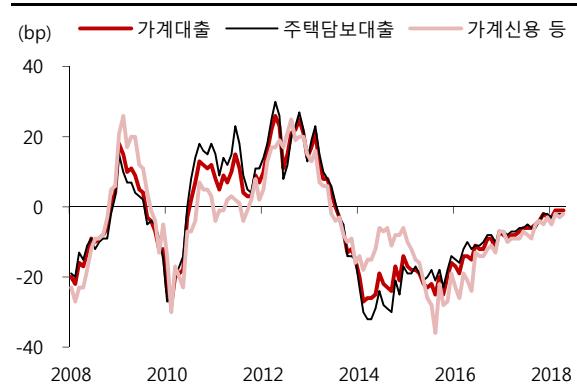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SK증권

그림 4.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자료: 금융감독원, SK증권

그림 6.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자료: 금융감독원, SK증권

그림 7.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: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체 규모는 감소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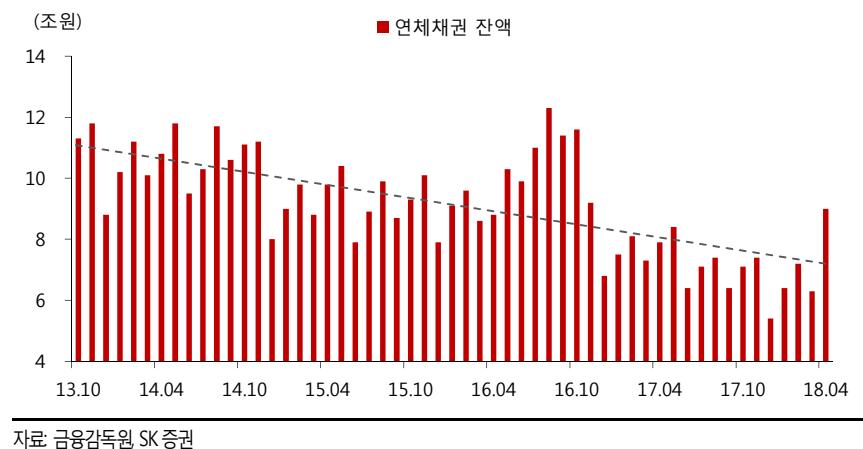


그림 8. 국내은행 월 중 신규연체 규모: 대출금리가 상승 전환된 4Q16 이후에도 신규연체는 감소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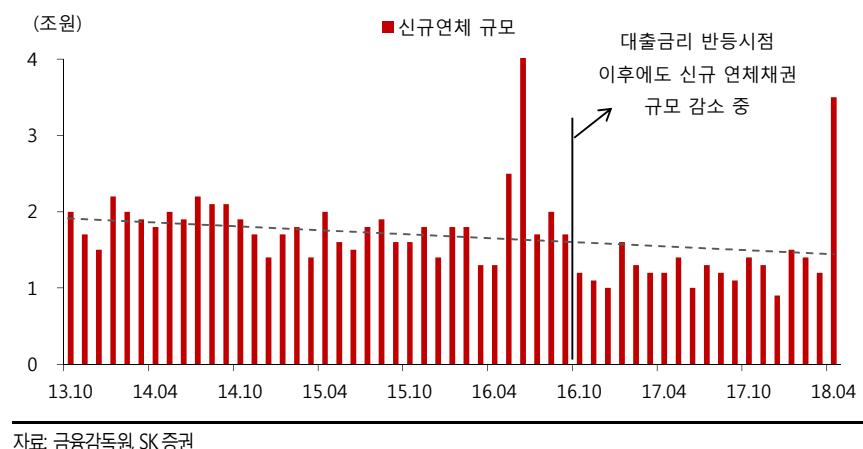


그림 9.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(추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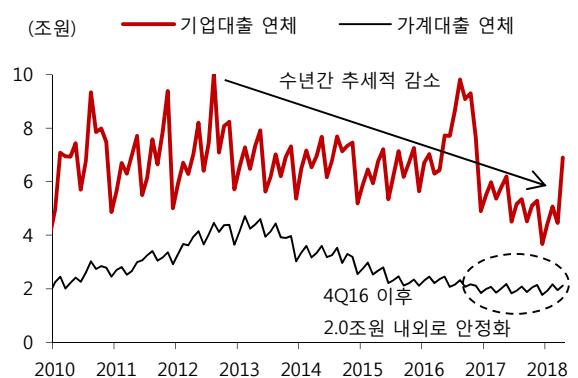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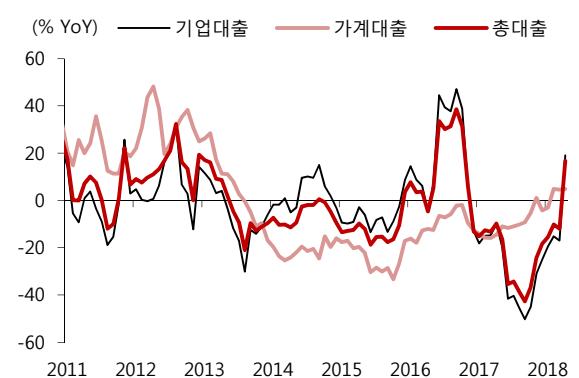


그림 10.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(추정)

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김도하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팀당사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18년 6월 11일 기준)

매수	90.98%	중립	9.02%	매도	0%
----	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